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9~9/1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박용길 역	민족사
2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3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4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림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6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	문일수	조계종출판사
7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8	염주의 역사와 수행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9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모과나무
10	스님 요즈음 뭘하십니까	정운	여시아문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마조어록	김태완 역주및도움말	침묵의향기
3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4	좋은 죽음에 관하여	몽테뉴	아르테
5	불멸 (1)	이각	지혜의눈
6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 수행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7	무비스님의 천수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8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매튜 캡스타인	운주사
9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10	차 문화 견문록	정영석 글, 사진	맑은소리맑은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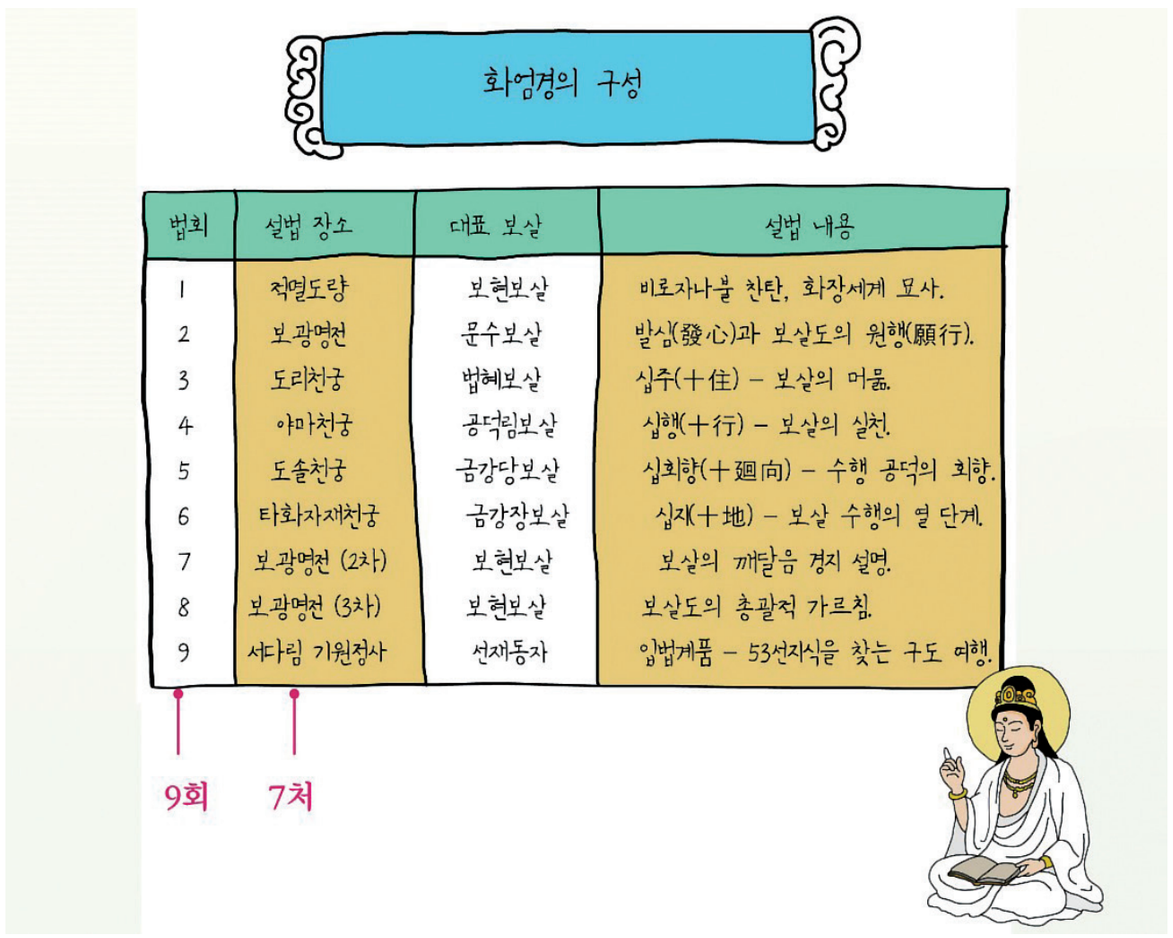
도표로 정리한 방대한 화엄 세계



도표로 읽는 화엄경
정병삼 · 옥나영 글
배종훈 그림
민족사
1만8500원

쉬운 설명과 시각자료 담은 입문서
경전 성립·구성부터 사상까지 수록
민족사 9번째 '도표로 읽는' 시리즈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도표로 읽는 화엄경〉에 수록된 80권본 〈화엄경〉의 구성을 설명하는 삽화. 그림 제공=민족사

대승 경전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진 〈화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위대한 부처님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꽃으로 꼽힐 만큼 깊은 사상적 체계를 자랑하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법계연기(法界緣起) 등 핵심 사상부터 보살 수행에 이르기까지 대승불교의 거대한 세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이래 천여 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불교사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하지만 80권으로 이뤄진 방대한 분량 탓에 경전을 선뜻 펼치기란 쉽지 않다. 〈도표로 읽는 화엄경〉은 이 같은 〈화엄경〉을 도표와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입문서다. 불교의 낯선 용어와 복잡한 교리를 쉬운 설명과 직관적인 시각 자료로 풀어내는 민족사의 '도표로 읽는' 시리즈의 아홉 번째 책이기도 하다.

이번 신간은 한국 불교사 연구자인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옥나영 홍익대 강사가 공동 집필했다. 두 저자의 자료 검수를 바탕으로 배종훈 작가가 그림과 도표를 더해, 글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책은 5장으로 구성돼 〈화엄경〉의 성립과 구성, 핵심 사상과 보살의 수행, 선재동자의 구도 여정, 동아시아 화엄사상까지 폭넓게 다룬다.

책은 경전의 기원과 구성, 동아시아로의 전파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여래출현과 보살의 길, 보현보살의 약속과 실천 등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조명한다. 이어 적멸도량부터 보광명전, 여러 천궁(도리·야마·도솔·타화자재 천궁), 서다림 급고독원에 이르기까지, 일곱 장소에서 아홉 차례 자리를 바꿔 법을 설하는 '39품 7처 9회'의 무대를 따라가며 〈화엄경〉의 세계와 이곳에서의 설법, 수행을 펼쳐보인다.

또한 법계연기와 십현연기(十玄緣起) 등 화엄의 교리와 함께 한국 화엄사상의 효시인 의상 대사, 중국 화엄사상을 완성한 법장 스님 등을 살핀다. 특히 모든 존재가 주체이자 객체로서 서로 동등한 의미를 지니는 화엄의 연기 세계를 현대 과학과의 접점 속에서 풀어내기도 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세주묘엄품'부터 '입법계품'에 이르기까지 39품 전체의 핵심 내용을 품별로 조명한다. 이 가운데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110개의 성을 지나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는 구도 여정을 다룬다. 이 과정은 깨달음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고, 삶의 모든 자리가 곧 수행의 현장임을 일깨워준다.

책을 펼치면 왼쪽에 글, 오른쪽에 그림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각 장의 핵심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백을 살린 삽화는 시각적 부담을 줄여 독서의 몰입을 돕는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화엄경〉의 성립과 구조, 핵심 사상에 이르는 전체 윤곽이 그려지며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진다.

공동 저자인 정병삼 교수는 "〈화엄경〉은 대승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경지를 보여주며 그 사상은 현대 물리학의 일부 관점과도 통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새로운 지식이 끝없이 펼쳐지는 요즘 이 책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데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대한 분량 탓에 〈화엄경〉 읽기를 주저했거나 화엄 세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고승들이 전하는 인생의 해답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
이진영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원효·의상 스님 등 문장 엄선
후회 없는 삶 위한 기준 제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고비마다 던지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에 수백 년 전 선승들의 지혜로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는 시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인간의 고뇌에 대해 성현들이 평생의 수행으로 찾아낸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동국역경원에서 불교 고전을 번역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원효·의상·나옹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들의 글을 엄선해, 현대인이 맞닥뜨린 삶의 고민에 깊은 성찰과 지혜를 전한다. 삶의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을 세워줄 스님들의 문장을 10장에 걸쳐 담았다.

선승들의 게송을 먼저 제시한 뒤, 그에 담긴 사유와 통찰을 저자의 해설로 풀어내는 구성이다. 이를 통해 욕망과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닦는 법,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저자는 나옹 혜근 스님의 〈나옹화상어록〉 속 게송을 통해 '무엇을 위해 바삐 사느냐'고 묻는다. 백발이 되도록 명예와 이익, 쾌락을 좇는 이들을 불빛에 뛰어드는 나방이나 끓는 물에 떨어지는 게에 비유한 스님의 게송은, 눈앞의 이익 뒤에 숨은 대가와 위험, 끊임없이 타오르는 업의 불길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발심과 각성을 촉구한다.

허응당 보우 스님은 "구름이 푸르든 희든 하늘이 무슨 관여를 하던가/ 남이 옳든 그르든 내 알 바 아니네"라는 게송으로 타인의 옳고 그름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마음속 분별망상을 여읜 자리에는 남을 향한 원망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다는 저자의 해설이 이어진다.

또 이어 부휴 선수 스님의 〈부휴당대사집〉 구절을 들어 "비록 비방과 칭찬을 듣더라도 바람 지나가듯 여긴다면/ 온갖 일에 무심하여 도가 저절로 세워지리라"는 제언을 전한다. 세간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비로소 고요한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이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천경집〉에 수록된 함월 해원 스님의 글귀를 내세운다. 달이 어두워져야 밤낮의 이치가 서고 물이 흘러야 맑음이 드러나듯, 만남 또한 이별을 거쳐야 온전해지며, 이별은 곧 새로운 인연을 잉태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일깨운다.

보조 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무심'의 태도를 빈 병에 비유한 게송에 주목한다. 저자는 마음이라는 그릇은 그대로 둔 채 욕망과 편견만 걷어냄으로써,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눌 스님의 통찰을 짚어낸다.

또한 화려한 꽃을 좇다가 거미줄에 걸린 곤충의 모습을 묘사한 백암 성총 스님의 〈백암집〉 게송을 소개하며, 자극적인 화면을 넘기며 타인의 화려한 삶을 좇다 절제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책은 어려운 불교 용어나 시대적 배경에 간결한 해설을 덧붙이는 한편, 고승의 생애와 사상, 출전 문헌을 함께 소개해 불교학적 깊이와 전문성을 더했다.

치열한 수행과 깊은 사유로 빚어낸 고승들의 문장은 현재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다가올 시간을 후회 없이 채워갈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배희정 기자

